

바람이 휘날려가 버렸다



모리밭을 너무 푸르 바다, 수월산, 산방산, 한리산이 파노라마 처럼 펼쳐진 이 길은 제주도를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조망 포인트로 꼽힌다.

청보리가 바람을 안고 춤추는 섬

어디까지가 보리밭인지

어디서부터가 바다인지 ...

사람마저 초록의 추억에 묻드네

피란 항늘, 파란 바다, 그사이 초록섬 하나.
해발고도 20m.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물 위에 방석 하나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천민국에서 가장 작은 섬 기파도를 찾아 떠났다.

모슬렘왕에서 배를 타고 15분. 채 멀미를 느끼기도 전에 초록색이
영광을 불어민다. 제주도도 섬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은
상승기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하루에 번 운행하는데 거센 물결이 지나
는 길목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출항하지 않아 배를 잘 멈춰야
한다.

간배공들이 조용히 찾던 기교도를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09년 4월 청보리 축제가 열리기 전부터다. 4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축제에는 올해로 5년째, 하루 방문객만 15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추체가 한창인 4월말 찾은 가파도는 온통 푸르다. 1만여평을 가
득 메운 보리가 물결처럼 다가와 바람인사를 한다. 섬 면적의 70%
에 이르는 가파도 보리는 ‘홍백’이라는 제주 재래종으로 일만보리



제주가과도
초록심

여행수첩

WHO
7

제주도 모슬포 항에서 하루 네번 여객선이 운항된다. 평일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4시에 출발. 왕복 배삯은 성인·청소년 1만원, 어린이 5000원.

날씨가 나쁘면 배가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리 문의
(삼영해운 064-794-5490) 해야 한다.

화산·지진

‘해녀촌’, ‘바다별장’, ‘올레길 식당’, ‘춘자네 식당’, ‘가파도 민박’, ‘블루웨스턴’ 등은 민박과 식당을 겸한다.

북이 어쨌든 해너블이 자랑하는 점이다.

TV 예능 프로그램 '박2일'에 소개돼 더 유명세를 탄 정식은 해녀들이 갓 잡은 자연산 문어, 소라, 전복 등을 통째로 냄비에 끓여낸다. 18가지 반찬에 가격은 더할나위 없이 착한 1인분 1만원.

성계 칼국수, 보말 칼국수도 별미다.

※ 가과도 선착장에서는 오후 4시까지 사전거도 대여할 수 있다. 커피용 8000원, 1인용 4000원.

미의 중심을 가르는 두 개의 큰 길이 있는데 특히 솜아산과 한라산
이로써 펼쳐진 전망은 압권이다.

천생 비대를 얻으려면 삼아야 하는 섬마을인지라 아낙들은 아직도 마을 할망당과 제단에서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위한 기원을 한다.

선사시대 이후부터 그곳에 올라가면 폭풍이 몰아친다 해 지금까지는 세 사람의 출원을 금하는 '까메가 봉산도 용미불다. 마을 앞 해안에는 '고미방'이라는 섬불이 있는데 제주 유인도(주자·유도·비양·마라도) 중 유일하게 용현수가 솟아나 옛부터 물 걱정이 없는 섬으로 알려졌다.

가파도에서 보면 북쪽으로는 허라산이, 남쪽으로는 마라도가 진 명하다. 가파도와 마라도는 아주 가까운 이웃 섬이다. 그래서 섬사 윌리엄스씨가 돈을 빌리면 갯아도(가파도) 좋고 말아도(마라도) 좋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겨났다고 한다.

올레길 10-1 코스이기도 한 가파로운 어느 길을 택해 걸어도 좋다. 이곳 저곳을 가보다 한곳에 오래 서서 응시할수록 아름다운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이젠 고라도 왕 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아게!’

이 말은 제주 방언으로 '아무리 말해도 와서 봐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 백문이 불여일견. 지금 떠나도 좋고 잠시 미뤄도 좋다. 푸르른 청보리가 그렇게 익어도 가파도 보리밭은 언제나 너른 가슴으로 반겨줄 것이다.

회색빛 일상에 푸른 점 하나 찍고 싶다면 다시로운 봄 햇살과 바람, 어린 시절 향수가 가득한 가파도로 떠나보자. 이 봄이 가기 전에.

기파도 = 임수영기자 swim@kwangju.co.kr
 <사진제공 = 김철홍 '이제주 날마다 소풍' 블로그 운영>

보다 키가 큰게 특징이다. 상동마을에서 하동마을로 곧장 이어지는 가파도 중앙길은 산 하나 언덕 하나 없는 평지에 온통 보리밭뿐이다. 특히 요즘 가파도 청보리밭은 발바닥이 누그러지게 피어오른 깃무뚝이 들따과 어울려 온기를 더한다.

길게 펼쳐진 보리밭이다. 어디까지가 보리밭인지 어디서부터가 바다인지... 지평선과 수평선이 맞닿은 코발트빛 바다 너머 산방산, 송악산, 수월봉, 한라산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풍경은 기승 기복 형 감을 선물한다.

‘보리밭 사이길로’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지는 길을 걷다보니 보다
 ‘보리밭’을 물린 두번식들이 거에서 나와 마주한다. 시골에서 자라자
 나 내학 풍습 봉사활동을 경험한 내마리 피리에 대해 추억이
 있을 것이다. 피리를 팔아 돈을 살라 깨문 뒤 불면 ‘뻐’ 하고 소
 리가 난다. 성음들이 낮은 보리 피리는 ‘불었다’ 보다는 ‘불었다’는
 기적이 더 많은 풍자인 것이다. 지금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마을의 풍자가 배배찼지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기억에 어느
 때는 이런 한순간에
 머문다.

가파도는 모슬포에서 남쪽으로 5.5km. 해안선을 따라 신척을 나가서면 두 시간 여 만에 다시 출발하던 돌아올 만큼 작고 아담한 섬이었다. 1653년 가파도에 표류했던 네덜란드 선박 스즈메르베르흐,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선원 헨드릭 하멜이 '화란신 제국도 난파기'와 '조선국기를 저술해 우리나라가 서양에 처음 소개된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하다.

가과도는 제주를 가장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조망 포인트로도 꼽힌다. 상동과 하동 두 개의 마을이 있고 해안 일주도로와

청보리가 바람을 안고 춤추는 섬
어디까지가 보리밭인지
어디서부터가 바다인지...
사람마저 초록의 추억에 물드네

피란 항늘, 파란 바다, 그사이 초록섬 하나.
해발고도 20m.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물 위에 방석 하나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천민국에서 가장 작은 섬 기파도를 찾아 떠났다.

모슬렘왕에서 배를 타고 15년. 채 멀미를 느끼기도 전에 초록색이
영향을 붙여준다. 제주도도 섬을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여객선으로
상승기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하루에 번 운행하는데 거센 물결이 지나
는 길목마다 사정이 여의치 않은지 출항하지 않아 배를 잘 멈춰야
한다.

간배공들이 조용히 찾던 기교도를 주목하기 시작한 건 2009년 4월 청보리 축제가 열리기 전부터다. 4월 초순부터 5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축제에는 올해로 5년째, 하루 방문객만 15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추체가 한창인 4월말 찾은 가파도는 온통 푸르다. 1만여평을 가
득 메운 보리가 물결처럼 다가와 바람인사를 한다. 섬 면적의 70%
에 이르는 가파도 보리는 ‘홍백’이라는 제주 재래종으로 일만 보리